

노사문제
사건사례

임금 체불

워홀러 Q씨는 청소업체에서 주당 100시간 근무함. 처음 면접 시 시간당 \$15를 현금으로 지급받기(Cash Job)로 하였으나 고용주는 청소상태가 불량하다며 첫 2주치 임금을 줄 수 없다고 함. 그리고 Q씨가 추후에 회사에 끼칠 피해를 대비하여 1주치 임금을 보증금 명목으로 지불유예 하겠다고 함.



TIP | 대비 일을 시작하기 전, 고용주와 고용계약서를 작성하고 자신이 일한 시간을 구체적으로 기록해 두어 증거자료로 활용.

TIP | 대처 고용주와 원만한 해결이 불가능할 시, 관련 노동조합이나 Fair Work Commission을 통해 해결 가능. Fair Work 규정에 의해 최저시급 약 \$17과 휴일 근무 수당을 별도로 받을 수 있고 연금 9.5%도 별도로 적립 가능함.

산업재해

워홀러 R씨는 바나나 농장에서 수확 작업을 하던 중 칼로 머리에 부상을 당해 이틀간 입원 치료를 받고 본인이 병원비를 지불함.



TIP | 대처 병원비와 이 사고로 인해 벌지 못한 수익에 대해서도 보상을 받을 수 있음. 따라서 고용주에게 산업재해 처리해 줄 것을 요청 하고 Workcover에 연락하여 추가로 보상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는지 문의할 것.

AUSTRALIA
WORKING HOLIDAY

7

어학연수



사전준비 | 학원 선택 및 등록

7 어학연수

사전 준비

기본사항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소지할 경우, 한 학교에서 어학연수를 할 수 있는 기간은 최대 17 주임.

세컨비자 취득 시 다시 17주 어학연수 할 수 있음.

취업 및 일상 생활을 위해 기본적인 회화는 한국에서 미리 준비해서 와야 함.
여유가 된다면 호주 정착 초기에 어학연수를 먼저 하고 취업, 여행 등을 하는 것이, 일을 해서 모은 돈으로 나중에 어학연수를 하는 것보다 유리함. 어학 실력이 뛰어난 사람이 더 다양한 직종에 지원할 수 있고 실제 채용 시에도 유리할 수 있음.

학원 선택 및 등록

학원 선택

학원은 미리 한국에서 등록하고 올 수도 있고 호주 현지에서 유학원을 통하거나 직접 해당 학원을 방문하여 상담 가능.

대부분의 유학원이 무료로 등록을 대행해 주나 강의의 질에 상관없이 유학원에 수수료가 많이 지급하는 곳으로 등록을 유도할 수 있으니 주의할 것.

수강 중인 친구들이나 다른 학생들의 평가를 들어보는 것이 중요하며 등록 전에 공개 강의(Trial Lesson)를 들을 수 있는지 확인할 것.

대부분의 어학원은 대도시에 집중되어 있으며 큰 도시일수록 한국, 중국 등 아시아 출신 학생들의 비중이 높은 편임.

학원(학교) 선택을 위한 사이트

- cricos.education.gov.au
- 어학연수 및 호주 대학교 과정 진학을 위한 학교 검색 가능.



학원 등록

학비는 유학원에 납부하지 말고 학원(또는 학교)에서 지정한 계좌로 직접 송금할 것.
학비는 과정에 따라 다양하며 대체로 주당 \$250 ~ \$500 선임.

영어과정은 General English와 학교 진학을 위한 IELTS 과정 등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보통 주당 20시간 ~ 25시간으로 구성.

종교단체나 지역 도서관 등에 무료 영어 과정이 개설되어 있는 곳도 많음.
(www.youenglishcorner.net/australia.html)



어학연수 사건사례

유학원 학비 갈취 사례

M은 워홀 기간 동안 열심히 일해 번 돈으로 한국으로 돌아가기 전 어학 연수를 하기로 함. 시드니의 한 유학원에서 상담을 받은 후 10주차 학비 \$3,000을 유학원에 납부함. 개강 당일 해당 학원을 방문하였으나 등록이 되지 않은 사실을 발견하고 유학원 사무실을 찾았으나 문이 잠겨있고 직원들은 연락이 두절됨.



TIP | 대비 유학원 선택 시 장기간 검증된 신뢰도가 높은 곳으로 선택하고 학비 납부는 유학원에 납부하지 말고 반드시 학원 계좌로 송금하고 영수증을 보관해야 함. 경우에 따라 유학원 직원이 개인적으로 학비를 횡령하고 도주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 경우에도 유학원으로부터 보상을 받기가 사실상 어려움.